

# 미국은 과연 몰락할 것인가

## 전략과 경제의 상호관계 규명한 「強大國의 興亡」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영광의 절정은 곧 몰락과 쇠퇴의 시작이기도 하다. 최근 1500년대 즉 르네상스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주도한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새로운 관점에서 흥미롭게 파헤친 역사가 번역돼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이 바로 그것으로, 한국경제신문사가 랜덤하우스사와 한국어 출판권 계약을 맺고 우리말로 옮겨 펴낸 것이다.

### ‘미국의 쇠퇴’에 대한 우려 반영

이 책은 지난해 1월 발간된 이래 시의적절한 주제 때문에 미국 안팎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한해동안 24만5천부가 팔리는 등 논픽션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뉴욕타임즈」의 ‘88최우수도서’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책의 내용과 상업적 성공이 80년대 들어 뚜렷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미국의 쇠퇴’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해왔던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헤게모니를 상실해가면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쇠퇴의 불가피함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자구책을 모색하려는 이른바 ‘쇠퇴학파’(School of Decline)라는 일군의 학자들이 형성되었는데 이 책 역시 이러한 부류에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88년 미국에서 선봉을 일으킨**

**「강대국의 흥망」은 지난 5세기 동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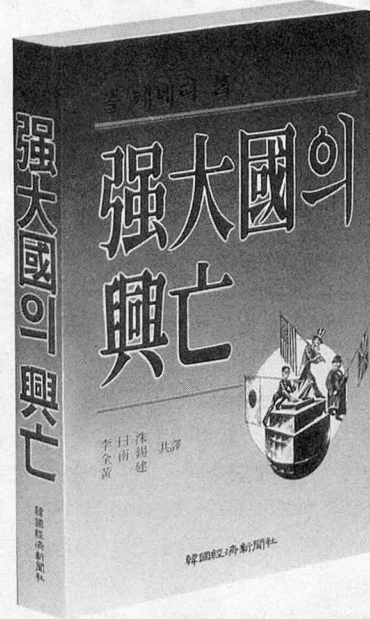
**전세계적 정치행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시대 강대국간의**

**정치역학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속하는 서적의 하나라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부제인 「1500~2000년의 경제변화와 군사충돌」이 시사해주듯이 지난 5세기 동안의 세계사의 흐름을 폭넓게 분석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강대국의 흥망을 좌우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관찰시키고 있는 원리란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는 항상富力 필요하며 부를 획득하고 지탱하는 데는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자원의 너무 많은 부분이 부의 생산에서 빼돌려져 군사목적에 쓰인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즉 최근의 미국을 비롯해 과거의 수많은 강대국들은 기술발전, 경제성장을 통해 그 지위를 유지하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국력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군사비에 돌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중한 군사비를 무한정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상태가 깨지면서 쇠퇴하게 된다. 반면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성



‘애국심’ ‘의지력’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점은 80년대 미국의 람보 레이저니즘의 선봉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을 ‘미국의 몰락’으로 대치시킨 저서이며, 그 방법론으로 정신사적, 철학적 탐구 대신 경제학과 군사학을 응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루는 범위가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읽을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나 일반 독자 모두에게 유익한 읽을거리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전쟁과 평화, 전략과 경제의 상호작용 및 함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한편,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운위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과연 미국이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뒤따를지는 미래의 역사가 입증해주겠지만 어느 나라나 부딪치게 마련인 경제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일과 군사력과의 비교우위에 대한 저자의 통찰은 날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자의 단언 그대로 “강대국의 흥망사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고 본다면 정치가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라살림을 꾸려나감으로써 쇠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저자 폴 케네디는 45년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의 저명한 군사전략사가인 배슬리트 하트경 밑에서 수학했으며 ‘태평양의 공격’, 「영국 해군 지배력의 증강」, 「전략과 외교」 등 7권의 저서와 3권의 편저를 낸 바 있다. —남진우 기자

장에 박차를 가한 나라가 새로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 미·소 양극체제에서 다극화시대로

일핏 생각하면 너무나도 타당하고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 책의 장점은 이러한 이론을 단순히 주장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근·현대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세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저자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고 또 앞으로 전개될 우리시대 강대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중점 분석하고 있다. 전후 세계질서를 지탱해왔던 미·소 양극체제가 서유럽과 중국, 일본 등 신흥 강대국이 참여한 5각체제로 변하는 다극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고, 미·소 두 군사대국은 지금까지 국제문제를 ‘마니코의 흑백논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과중한 군사비 부담에 허덕여왔고 따라서 상대적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강대국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나라는 흔히 ‘옛가치로의 복귀’를 부르짖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될 거라구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록은 역사 그것보다 보배롭습니다. 가슴 속에 묻힌 얘기, 세월에 날린 얘기를 담는 데 — 취재에서 기록까지 일 잘하는 바른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거들겠습니다.

**출판·편집대행**

121-11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5의 5 한국출판단지 내 121호 전화 (02) 716-0280

**유진 AD**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 전산 시스템 가동**

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전산사식 · 사진사식 · 편집 · 광고기획

TEL. 273-6486 FAX. 273-6173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9 (동명 BD3층)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편행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0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3,5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직접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머리와 손을 빌려 드립니다”**

**편집대행**

표지디자인, 종합카탈로그, 출판광고 단행본, 사보, 전기, 자서전, 연감, 사진, 수필, 소설 등 원고에서 책이 되기까지 머리와 손을 빌려 드립니다.

● 전산사식 · 사진사식 시스템

**한성기획** T.274-4670 서울 중구 중무로5가 22-5 정음사 B/ D 305호